



## SK증권

## 3년 만기 ELS 등 2종 공모

SK증권은 오는 18일까지 추가연계증권(ELS) 1종 및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제2450회 ELS’는 코스피200(KOSPI200) 지수, 홍콩항셱(HSCEI) 지수 및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두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0% (6~12개월), 85% (18~24개월), 80% (30개월), 65% (36개월) 이상이 되면 연 6.60%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지수의 6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손영희 기자

# 강남까지 20분... GTX발 땅값 ‘파삼공세’

(파주-삼성역 인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심 쏠려 대곡역 투자 매수 장기적 관점 봐야

경기도 파주와 서울 강남 삼성을 잇는 GTX-A노선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일대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주요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투자 분위기가 달아 오르는 모습이다.

GTX-A노선은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고 경기도 파주 운정역과 킨텍스, 대곡역, 서울역,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43.6km 구간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0분만에 주파하는 GTX-A노선이 개통되면 파주-일산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 고양시 대화역 킨텍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15일 “고양시 대화동의 땅값이 현재 3.3㎡당 80만~9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30만원 오른 상태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했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는 커다란 변동이 없는 상태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대화역 일대(왼쪽)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전경.

고양시 대화동의 아파트 1㎡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332만원에서 4월 338만원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중개업자는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문촌마을을 19단지 99㎡가 5억원대 초반 132㎡는 6억원 초·중반, 17단지 158㎡형이 6억원대 중반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대화역이 있는 대장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관건이다. 이곳은 현재 경의중앙선과 3호선이 지나고 있다. 대곡역~소사 중전철 노선에도 포함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GTX-A노선 개통으로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수도권 서북부지역 광역교통의 요충

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중개업자는 “대곡역 일대는 현재 땅값이 3.3㎡당 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30만원 올랐다”며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수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개발호재가 겹치고 있다. 운정역 인근 중개업자에 따르면 오는 7월 입주할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분양가에서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두 아파트는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GTX 파주(운정)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한편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3조원 규모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권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5월 초 정부협상단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며 “최근 판문점선언 등 정치적 흐름이나 GTX-A 노선 개통 등 호재로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 당분간 관심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키움증권

## ‘ISA 수익률 테스트’ 이벤트

키움증권은 6월 말까지 ‘ISA 수익률 테스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키움증권 ISA 가입 시(최소 1만원) 해피콘 1만원권과 현금 5000원(ISA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의 ISA MP(모델포트폴리오)는 총 3종으로 기본투자형, 목표달성형, 배당형이 있다. 이중 기본투자형은 글로벌 자산배분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영희 기자

## 대신증권

재테크 카페회원 대상  
로보 자산관리 세미나

대신증권은 16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대신파이낸스센터 3층에서 인터넷 재테크 동호회인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6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1부는 2018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부동산, 금융 절세투자전략을, 2부는 국내외 경기동향과 비용의 복리효과 그리고 대신 로보어드바이저 소개 및 활용법을 설명한다. /김문호 기자

## 국내 1위 복강경 의료장비 업체... 영업이익률 44%

## IPO 기자간담회

## 세종메디칼

## 세계 첫 골다공증 진단키트 개발중

헬스케어장비업체 세종메디칼이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세종메디칼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18, 21일 청약 실시하고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설립된 세종메디칼은 국내 최초로 복강경 수술기인 투관침(Trocar) 국산화 및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3사와 함께 복강경 수술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세종메디칼은 투관침 뿐만 아니라 복강경 수술 필수품인 복강경용 장기적출주머니(Bag) 및 봉합기(Loop)까지 개발해 복강경 수술기 국산화 선도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매출은 꾸준한 성장세다. 지난 해 매출은



15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성환 세종메디칼 대표이사가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45억원, 영업이익은 61.0% 증가한 63억원을 기록했다. 또 최근 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개발 자산화 비중은 0%로 전액 비용처리를 통해 재무 건정성을 갖췄다.

해당기간 영업이익률은 30.7%에서 43.5%로 높아졌다. 이는 제품 기획부터 공급까지 전기술 공정 내재화를 통한 일괄생산체제 구축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이다.

조성환 세종메디칼 대표이사는 “원스톱 생산시스템으로 불량률을 크게 낮춘 덕분에 원가율이 좋아졌다”며 “매출이 커질수록 이익률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시장 진출도 본격 시작했다. 현재까지 해외 35개국 27개사에 진출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FDA 등록을 지난해 완료했고, 인도시장과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문생산(OEM)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연 평균 13%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세계 로봇수술기 시장에도 발을 들였다.

조 대표는 “로봇수술 시스템을 개발한 미래컴퍼니에 맞는 전용 트로카(Trocar) 개발에 성공해 6월부터 단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세종메디칼은 자회사 세종바이오메드를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 최초로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는 면역 혈액 진단 키트(kit)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협심증을 진단할 수 있는 현장 진단(POCT), 자궁경부암 진단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1만800원~1만3700원으로 총 203만주를 공모한다. 이 중 신주모집은 122만주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될 약 278억원의 자금은 해외진출에 사용될 계획이다. 오는 29일 상장예정인 세종메디칼의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글·사진= 손영희 기자 sonumji301@

## 아파트 지니... 분양 열기 지피는 ‘오피스텔’

## 1인가구 증가·자금부담 적어 인기

최근 가족 구성원이 줄어든 1~2인가구가 늘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도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 몰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인가구 수는 317만675명이었다. 2010년에는 414만2165명, 2015년 520만3440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539만7615명으로 전년 대비 3.73% 올랐다.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에 따라 수요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최근 3년간 해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 4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은 1억4141만원으로 아파트보다 8500만원 가량 낮았다. 또 같은 시점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1억7749만원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보다 약 5000만원 저렴한 수치를 보였다. 오피

스텔은 아파트 전세값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가능하고, 전셋집마련 자금 부담도 적은데다 주로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주거공간이다.

실제로 이러한 오피스텔은 분양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뜨겁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엠디엠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한 ‘광교 다샵 레이크시티’는 평균 5.5대 1, 최고 2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이달 현대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일대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는 622실 모집에 총 6만5546건이 접수돼 평균 10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못지않은 구조로 설계되거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3·4Bay 평면설계로 아파트 내부와 유사하거나 테라스, 복층 구조 등과 같은 특화설계를 적용하는가 하면 드레스룸, 팬트리, 천정고, 주차공간 확장 등을 통해 공간활용도 높여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